

장거리 로켓 14일 태양절 축포로 발사 유력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예고 첫날인 12일 쏠 수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체 조립을 완료함에 따라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가 조마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상조건과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놓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발사 예고(12~16일) 첫날인 12일이 거론된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

발사추진단장은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는 예고일 첫날 발사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하고 모든 준비를 하게 된다”며 “발사 날짜를 중간이나 뒤쪽에 두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 작업의 노동 강도와 집중도를 감안하면 준비 상태에서 지체 없이 발사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첫날 날씨가 좋았는데 발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날의 날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준비하는 장거리 로켓은 김일성 생일(15일) ‘축포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14일이 D-데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미 3단계 로켓까지 조립을 완료하고 연료 주입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경축행사 전날 세리머니를 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김일성 생일 전날인 14일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1일 당대표자회와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당과 국가 지도자로 공식 추대한 직후와 김일성 100회 생일(15일)의 가운데 날짜를 택할 것이라 얘기다. 지난 7일 로켓 발사 참관을 위해 대부분의 기자들이 방북한 데 이어 12일엔 또 다른 외신기자들이 평양을 찾을 예정이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북한, 4월 내내 3대 세습 이벤트

김정일에게 김일성 훈장 주고 김정은 당·군 최고위 오를 듯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인 태양절(15일)을 앞두고 9일 김정일에게 북한 최고의 영예포상인 김일성 훈장을 줬다. 할아버지 생일에 손자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상’을 수여한 셈이다. 세계 유일의 3대 세습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령을 통해… 선군 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만연도대를 마련해주시 김정은 동지께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을 맞으며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2대 교주에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동시에 3대 공식 선포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주부터 ‘김정은의 북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사 일정이 촘촘히 잡혀 있다. 11일 당대표자회(김정은 당 총비서 추대 예상), 13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은 국방위원장 추대 예상),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태양절, 25일 군 창건일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이 노동당과 국가기구의 최고직위를 맡으면서 최고지도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 중엔 북한의 파워엘리트의 재편도 마무리된다. 당대표자회에선 당 인사, 최고인민회의에선 내각, 군 창건일엔 군 인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 당·정·군의 인사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로열패밀리, 김정각군 총정치부 제1부국장과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부 강경파, 그리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온건협상파 중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북 “김정은이 공개 결단” 강조 발사대 200m 안은 출입 막아

동창리 발사장 초대받은 외신

“이 로켓(로켓) 한번 보십시오. 저게 탄도 로켓이나(인피카), 위성 로켓이나.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 앞에 초청한 겁니다.”

8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외신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장명진 발사장 책임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북한의 외신기자 초청 계획에 참여한 미국·영국·중국 등 19개국의 외신기자 60여 명은 발사장 현장 취재 소식을 전하며 ‘드문(rare)’ ‘특이한(unusual)’ 등의 표현을 연발했다. 북한이 기자들을 공식 초청한 것도 놀라운 일인 데다 전혀 없이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대와 종합지휘소 등 군사시설을 속속들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로켓에 장착할 실물 위성까지 보여줬다.

초대를 받은 기자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편으로 평양 순안공

항에 도착했다. 기자단은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를 가로지른 뒤 북한 당국이 마련한 ‘VIP 전용열차’로 갈아탔다. 다섯 시간이 걸려 동창리에 도착하자 북한 당국의 검문검색이 실시됐다. 취재진은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 차례나 몸수색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기

19개국 기자 60여 명 방북 몸수색 3회… 휴대폰도 금지 북 “무수단리서도 쓸 계획”

기, 노트북은 반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영상 녹화나 사진 촬영은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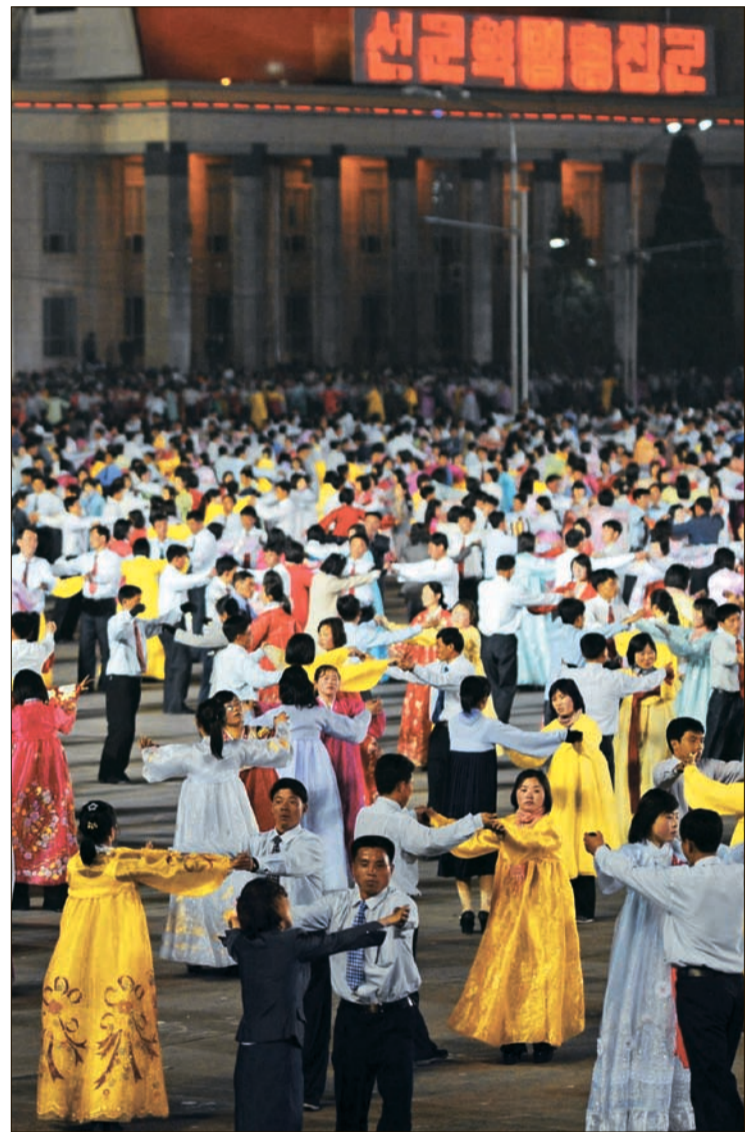
발사장에 이르자 장명진이 직접 나와 안내를 시작했다. 발사장 직원들은 북한이 로켓에 탑재하겠다고 밝힌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보여주며 무게가 100kg, 높이는 1m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명진은 로켓이 설치된 발사대도 보여줬지만, 발사대 200m 안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높

이 30m의 크림색 로켓에는 인공기와 ‘은하 3’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종합지휘소에선 대형 스크린으로 발사대를 모니터링하며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장명진은 “이번 주 중에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모두 마쳤고, 곧 연료 주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이례적 취재진 초청은 이번 로켓 발사가 군사용이 아닌 과학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NHK는 “북한 위성은 노래를 전송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장에서 안내를 한 발사장 책임자(장명진 추정)는 시설 공개는 김정은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일련의 개발 계획이 최고지도자의 주도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 개발과 관련,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외에도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구체적인 위성 발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김일성 생일 앞두고 심야 춤 연습 9일 평양 시민들이 김일성 100회 생일(15일)을 앞두고 시내에서 대규모 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 외신들은 북한이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권력 장악을 돕기 위해 로켓 발사 등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AFP=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공고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긴급재난구호 및 인도주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작년 3월 11일 동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9.0 상당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 받은 이웃 나라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가.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 나. 목 적: 일본지진 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 다. 등 록: 행정안전부 2011-18호
 - 라. 모집기간: 2011.3.14 ~ 2011.5.13 (사용기한: 2012.2.28 까지)
- 모집 및 집행현황**

모금액(원)		사용액(원)		참고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현금	43,715,980,407원	구조성금	44,403,842,617원	* 일본적십자사 협력
물품	836,759,505원	모집비용	148,897,295원	* 전체 금액의 0.33%
합계	44,552,739,912원	합계	44,552,739,912원	

- 주요 구호내역**
 - 가. 이재민 구호 및 자립기반 재건을 위한 구조성금 전달
 - 나. 기증물품 전달 등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 -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 청년인턴 채용공고

- 채용분야(주요업무)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단위	세부직무 또는 지원자격	근무예정지별 채용인원	
		근무지	일반/고졸
본부 1	행정업무 지원	본부 (서울)	5 0
	행정지원 및 도서 정리	본부 (서울)	0 2
	국제협력, 영어회화 및 번역 가능자	본부 (서울)	2 0
본부 2	컴퓨터, 전산, 정보보안 전공자	본부 (서울)	1 0
	페이스북, 블로그마을 운영 (전산관련 전공자)	본부 (서울)	1 0
본부 3	생물, 지리분야 전공자	본부 (서울)	1 0
	임학, 생물분야 전공자	본부 (서울)	1 0
본부 4	일러스트, 포토샵 운용 건축, 토목, 조경, 산업디자인 전공자	본부 (서울)	1 0
지방 1	역사·문화자원 분야 전공자	서울 및 지방	9 0
지방 2	공원관리 (전공제한 없음)	서울 및 지방	16 9
지방 3	생물관련 전공자 (공원자원 DB 구축)	국립공원연구원	3 0
	생물관련 전공자 (별종위기종 복원사업)	중복원센터	1 0

※ 근무예정지 중 본부, 지방사무소 (전국 26개 사무소), 연구원(전북 남원, 중복원센터(전남 구례)로 근무 가능여부를 지원자가 사전 검토 바람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응시지원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2. 4. 10. ~ 2012. 4. 17. 18시까지
 -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e-채용마당 (<http://www.work.go.kr>) 온라인 접수
- 기타사항**
 - 세부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e-채용마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재개발부 (담당: 이현태) 02-3279-2762

2012년 4월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광고안내

02)754-5566

공 고 분 실

분양계약서충남연기남면중촌일원 1-3생활권내L3BL1110-703김미정 분양옵선계약서경기김포항강3로 90-13 한양수자인1617-604 조광원

매 매 학 학 원

高 校 인문계 남및 공학 이수원 수도 총청010-4914-3216

마음의 로드맵

갈 12,800원 | 구인문의 02)2000-5352 | 예스원

광고문의

본 사 광 고 본 부 (02) 751-5555
 밀 알 광 고 센 터 (02) 364-3500
 강 북 광 고 센 터 (02) 777-7856
 중앙강남광고센터 (02) 771-3677
 서 울 광 고 센 터 (02) 777-7007
 티 미 디 어 센 터 (02) 778-2568
 출 판 서 적 센 터 (02) 757-2542
 정 부 광 고 센 터 (02) 756-6611
 안 내 광 고 센 터 (02) 754-5566
 강 경 광 고 센 터 (031)871-6223
 경 기 광 고 센 터 (031)718-6111
 인 천 광 고 센 터 (032)431-4101
 광 주 광 고 센 터 (062)363-5617
 대 구 광 고 센 터 (053)429-7071
 대 전 광 고 센 터 (042)489-7188
 부 산 광 고 센 터 (051)469-7484